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18.(월) 배포 2025. 8. 18.(월) 14:00

식물 속 숨은 보물, 과학의 눈으로 찾아보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숲속 실험실 운영

교과서 속 과학이 실제 숲과 실험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오는 9월부터 11월 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교육 프로그램 ‘백두대간 숲속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숲속 실험실’은 기후위기 심화와 글로벌 생물 주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생태·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 세대의 생물 다양성 감수성과 과학적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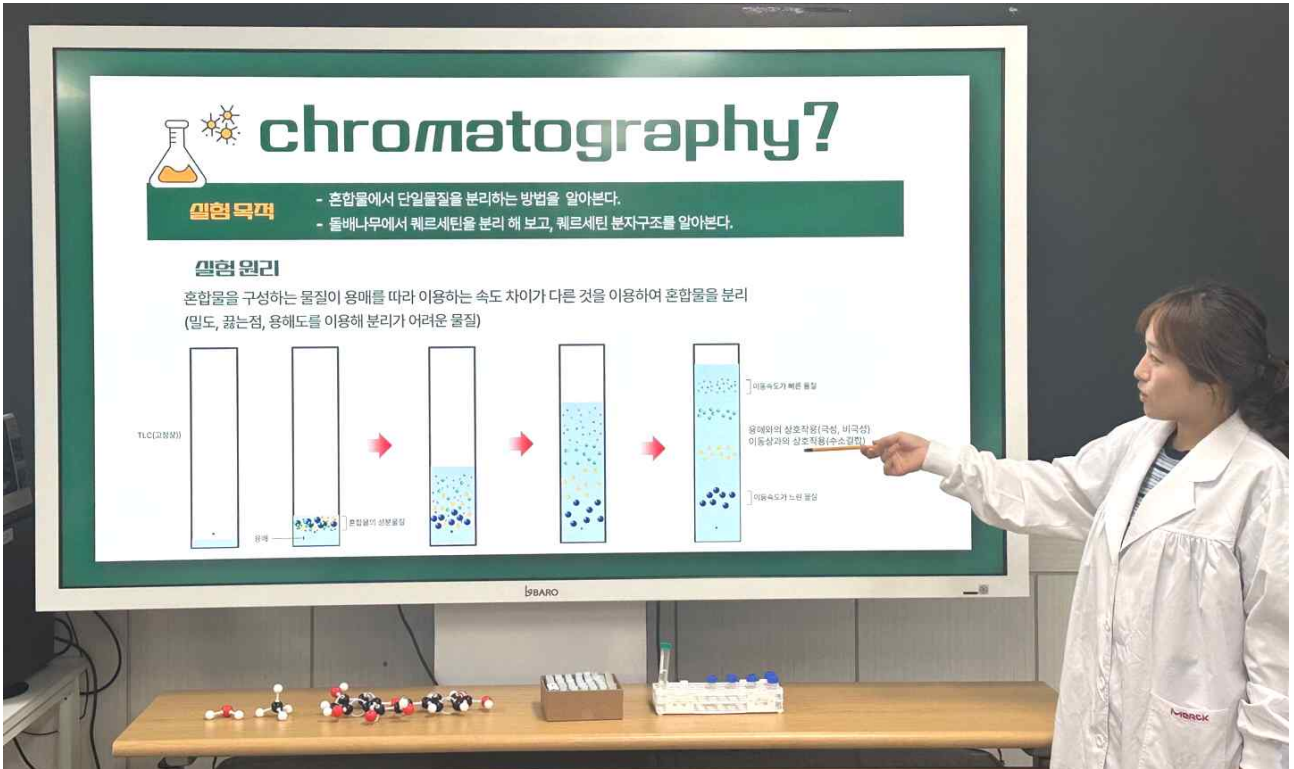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백두대간 일대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교육 소재로 활용해 약 90분 동안 ▲생물다양성과 자생식물의 역할 이해 ▲과학실험 안전 교육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TLC)를 이용한 식물 유래 이차대사산물 분리 ▲분자구조 모형 제작 등 자연 속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융합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www.bdna.or.kr) 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자생식물 속 유효물질이 갖는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구본광 (054-679-0901)
	서비스본부 교육운영실	담당자	주 임	우현심 (054-679-0906)





1.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험교육 프로그램 ‘백두대간 숲속 실험실’에서 강사가 식물 유효성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교육에 참가한 학생이 식물의 유효성분 분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